

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VOL. 3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의 종

1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축사

김종보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 서울법대 이야기

고학수 교수 · 실사구시(實事求是)로서의 법학

김형석 교수 · 사태에 대한 충실

이재민 교수 · 연구자적 실무가, 실무가적 연구자

천경훈 교수 · 글쓰기의 業

이종혁 교수 · 국제사법적 사고의 빈곤에 맞서다

김두빈 학생 ·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 교무주임, 박진희 서무주임 · 오늘도 법대에는 불이 켜진다

조상우, 김훈섭 학생 · 여행지에서 온 편지

이원호, 이정민, 김상균, 하성창, 최민서 학생 ·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입상을 위한 안내서

김병민 학생 · 조영래 변호사처럼, 열정으로 이성을 주도하라

12 기획취재

교수님의 이중생활 · 이근관 교수, 최봉경 교수, 최석환 교수

14 법학전문대학원 소식

17 연구소·센터 소식

19 릴레이 도서 추천

기금 안내

SNU Law 캠페인 안내

Next Decade 기금 안내

법학발전재단 및 발전기금 출연현황 2022. 9. 1. — 2023. 2. 28.

예우 안내

정의의 종 37호

발행일. 2023년 3월

발행인. 김종보 원장

편집인. 최준규 학생부원장

기획 및 제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까운 길과 먼 길을 함께

사랑하는 서울법대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분에게 합격과 입학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의 축하는, 자신이 얼마나 기쁘지 확인시켜주는 훌륭한 계기입니다. 어떨 때는 주변의 축하를 받으려고 합격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일 겁니다. 합격과 입학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감사해하길 바랍니다. 이 자리 서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의 충만한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서울법대는 이미 100년 넘게 법학의 교육기관, 그리고 연구기관으로 한국 사회를 선도해왔고, 수많은 인재를 양성한 산실입니다. 그 사이 한국은 근대화되고, 산업화과정을 거쳤으며, 민주화와 정보화의 물결을 넘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긴 과정과 변화의 길목에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 뒤를 여러분이 잇는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서울법대에 입학하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이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그 생각이 더 구체화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법대가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한 곳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목표는 서울법대가 아닌 곳에서도 충족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출범한 지 15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은 세간에서 오해되는 것처럼 실무를 가르치는 직업학교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법대에 들어온 이후부터 여러분은 프로페셔널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앞으로 이 방면에서 밥을 먹고 살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울법대에 입학해서 배우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법학이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민법은, 벌써 아주 작은, 일부 내용을 선생님들께 배우셨겠지만, 법률의 명칭이기도 하고, 민법학의 약칭이기도 합니다. 헌법도 실정법을 말하면서 동시에 헌법학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저는 행정법을 가르치는데, 행정법이라는 명칭의 실정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행정법은 온전히 행정법학을 지칭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법대의 교수님들은 물론 실무에 정통하시지만, 그 이전에 모두 위대한 법학자들이고 훌륭한 연구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을 영민한 법률가로 빛어 내시겠지만 실무를 가르쳐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완성은 선생님들이 보유한 높은 수준의 법학이론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학문으로서 법학을 배우는 3년

의 과정에 입학했음을 지금 마음 깊이 잘 새기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형식적 요소 중 서울법대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공부했다는 사실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울법대에서 배우는 내용이 실제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편향된, 기대를 받게 되고, 그에 부응하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 힘들지만, 또 혼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로스쿨에서 3년 만에 방대한 법적 지식을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 소화한 지식이라도, 생활에 응용하려면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3년 만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공부이지만, 그 못지않게 여러분 스스로 어떤 법률가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그를 위해 3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을 갈 때에는 눈앞의 길을 찾으면 되지만, 멀리 갈 때에는 방향을 보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가까운 길과 먼 길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 법대를 입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양의 공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로스쿨 기간 내내 체력 저하로 고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학기 중에 틈틈이 운동을 해서 건강을 잘 챙기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몸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 몸이 강건하지 못하면 마음도 또 정신력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작지만 법대에 운동시설과 운동프로그램도 있고, 또 운동 동아리도 많이 있으니 적절한 방법으로 체력을 다지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 2학기부터는 로스쿨생을 위한 체육 교과목을 개설할 계획인데, 절차가 완료되면 여러분에게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신입생 여러분을 지원하고 묵묵히 지켜봐 주셨던 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교수님들과 입학식을 빛내기 위해 같이 준비해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서울법대 신입생 여러분이 3년간 보석같이 빛나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2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 종 보

실사구시(實事求是)로서의 법학



고학수 교수

2022년 10월 7일 고학수 교수가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법 관련 분야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다. 이에 고학수 위원장을 만나 새로운 리걸 이슈를 개척해나간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소감이 궁금하다.
개인 정보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정말 높다는 것을 느끼며 한국이 기술에 있어 얼리어답터인 만큼,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출범한 지 2년 반 정도 된 신생 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존재감을 더 각인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법경제학,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하게 활동해왔다.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함께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던 당시의 선택이 궁금하다.
박세일 교수님의 법경제학 수업을 우연히 듣고 매료됐다. 경제학이 주는 사회과학적인 시각이 다소 추상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던 중, 법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함의가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이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 가서 경제학 박사과 로스쿨 JD를 함께 도전하게 되었다. 젊은 시절의 객기인지 용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공부가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는 것 같아 행복하다. 그때의 관심이 평생의 화두가 되어, 지금도 정보경제학과 프라이버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실무에서의 경험이 연구를 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법학에 있어 실무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법은 개별 분쟁이나 계약 등의 사안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학문이다 보니, 실무 현장에서의 고민들이 연구와 정책 제시에 있어 큰 자양분이 된다. 법 조문과 판례를 적용하기만 해서는 영혼 없는 법 기술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현장에서 겪는 사람들의 번뇌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업무 수행과 정책 설정에 있어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연구의 핵심 화두가 AI, 개인정보 등 데이터였기에 데이터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그동안 해왔던 고민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마침 연구년을 보내게 되었다. 개인정보는 관련 리걸 이슈가 많은 '바다와 같은 영역'이지만 국내에서의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연구에 뛰어들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그동안 해왔던 고민이 실무에 적용될 기회를 얻어 기쁘다. 실학의 '실사구시'란 말처럼 정책을 수립할 때에 있어 현실성, 구체성, 정책성을 항상 염두에 두며 위원장 일에 임하고 있다.

지난 취임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앞으로의 포부가 궁금하다.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원칙에 기반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다. 개인정보를 정의하는 데 있어 식별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식별성 스펙트럼 어딘가에 선을 긋고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명확한 규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따라서 원칙을 수립하고 명확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 역시 큰 목표다. 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 전송권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아날로그적인 환경과 디지털적인 환경이 혼재된 상태라 본다.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후학들에게 조언 부탁드린다.
데이터와 관련된 영역은 분야 간 경계가 크게 의미 없기에 경계를 넘나드는 호기심이 필요하다.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으면 한다. 남의 울타리에 대한 장벽, 영역을 불문하지 않은 호기심이 있어야 한다. 다른 분야에 대해 법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스스로 선을 긋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완 학생기자

사태에 대한 충실



김형석 교수

김형석 교수는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을 수상했다. 그에게 연구자의 길을 선택한 계기와 연구자로서의 태도, 그리고 연구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했다.

정신을 생동하게 하는 힘
고등학교 때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싶었던 김형석 교수는 그 시절 많은 법학도가 그렇듯 우수한 성적 탓에 타의로 법학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 때문인지 법과대학 1, 2학년 시절 김형석 교수는 법학 수업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양창수, 이호정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민법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법학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강의를 들으면 단순히 공부가 되는 것을 넘어 정신을 생동하게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두 선생님의 강의가 저에게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이러한 지적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김형석 교수는 자연스럽게 석사과정에 진학해 양도담보권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고, 이후 독일로 유학을 가서 2년 만에 변제자대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이후 귀국해서 담보를 비롯한 재산법에서 상속법에 이르기까지 민법 전반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 역시 정신을 생동하게 하는 민법의 매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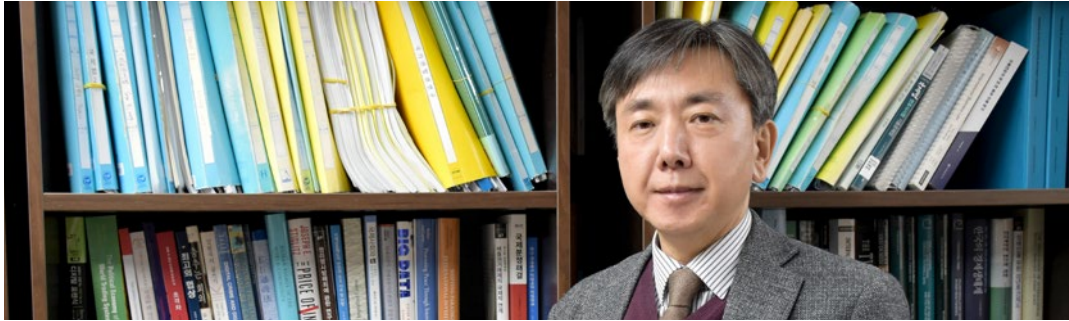
성실한 에커만
폭넓은 연구 주제를 다루는 김형석 교수에게 어떻게 연구 주제를 고르고 어떤 태도로 연구하는지를 묻자, 그는 요한 페터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에서 읽은 일화를 언급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주제 선정에 대해서는 미리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자신에게 제기되는 주제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괴테는 시인이 되고 싶어 하는 에커만에게 처음부터 대작을 쓰는 마음을 버리고, 시인의 마음속에 날마다 솟아오르는 시상이나 느낌에 집중해서 한 편의 시를 쓰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 역시 특별한 의도를 가지기보다는 그때마다 저에게 궁금한 것,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 참을 수 없는 판례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정해진 이후에는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할 것을 강조했다. 민법에 대해 가지는 이념적 태도가 있냐는 질문에 김형석 교수는 단호하게 부정하며, 중간에 대충 얼버무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성실함이 있다면 적절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한 성실함은, 전에 언젠가 양창수 교수님께서 쓰신 표현인데, '사태(Sache)에 대한 충실'과 이어집니다. 어떤 쟁점을 해결해야 할 때, 문헌과 기존의 논의를 살피고, 역사적 연원과 비교법적 관점을 돌아보며, 충돌하는 이익을衡量하는 등의 작업을 도중에 쉽게 얼버무리고자 하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서 문제되는 사태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한계의 끝까지 밀고 가보는 성실성 말입니다."

연구의 확장
폭넓은 연구 주제와 성실함을 바탕으로 김형석 교수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실무적 해결을 도모해왔고, 실무적 결과를 넘어서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 하나의 틀을 짓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에 더해 김형석 교수는 법 개정에 참여하고 후학들을 교육하는 등 사회 기여를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대표적으로 민법 개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김형석 교수의 교육 철학 역시 재미를 따라가되 법률가가 되기 위한 지적 성실성의 개발을 우선으로 한다. 그는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기보다는 법학적 사고방식을 갖추서 스스로 논증하는 것이 법학의 재미이자, 법률 교육의 핵심이라고 본다. "판례가 있으면 그 사실관계를 놓고 어떤 이익들이 충돌했고,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논거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짧게라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나중에 법률가로서 자신만의 논거를 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그냥 외우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재미를 따라서 민법을 공부하길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엽 학생기자

연구자적 실무가, 실무가적 연구자



이재민 교수

이재민 교수는 법대 교수 중에서도 독특한 커리어를 가진 것으로 손꼽힌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6회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해 외교부 조약과에서 일했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4년 동안 로펌에서 국제통상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국제법 학자이자 현재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에게 국제법의 중요성과 법학 연구와 실무의 상호작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국제법의 중요성

어린 시절 영어 공부와 해외토픽에 관심을 가지던 이재민 교수는 공적 영역에서 일하겠다는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자연히 사법시험보다는 국제적인 일과 관련된 외무고시를 선택했고, 합격한 후에는 조약과에서 일하며 국제법 분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국제법이 국가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들은 국제법의 틀에서 논의되고, 강대국일수록 자국의 이익에 맞게 국제법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교에 사활을 건 나라 입장에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중요해지리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후 국제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재민 교수는 외교부의 국제법 전문가 양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보스턴 칼리지(Boston College)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공적인 조약 업무를 넘어 실제 국제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Willkie Farr & Gallagher LLP에서 국제분쟁 실무를 선택하게 된다. 이재민 교수는 로펌에서 주로 국제통상분쟁과 관련한 국제분쟁 해결 절차에 직접 참여하고 국제법이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더 생생히 보며 그 중요성에 확신을 얻었다고 했다.

연구, 다시 실무로

이재민 교수는 이처럼 실무가로서 국제법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에는 점차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특히 국제분쟁이 해결되는 메커니즘 일반과 민간 주체와 국가들끼리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실무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다. 외교관 시절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로펌에 있으면서 추가로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연구자적 실무가의 삶을 지속했으나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는 욕구는 줄지 않았다. 2004년 한양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이후로는 국제법의 전통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AI 등 기술의 발전이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하며 그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재민 교수는 연구에 분명히 방점을 두고 있는 국제법 학자이지만, 여전히 실무와 접촉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고 밝혔다.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 WTO 보조금협정 전문가 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최근에는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연구자적 실무가였던 그가 이제는 실무가적 연구자로서 실무와 연구 모두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자로서 사회적 기여인 동시에, 실무가에서 출발한 저 자신이 실무가의 시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무가의 엣지(edge)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민 교수는 학생들에게도 법학도로서 연구와 실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다른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 역시 이러한 연구와 실무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국제법 분야에서도 BTS가 나올 수 있습니다. BTS 노래가 세계인이 공감하는 멜로디와 가사를 가진 것처럼, 국제법은 세계 모든 국가가 공감하는 규범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국제법계의 BTS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엽 학생기자

글쓰기의 業



천경훈 교수

“남에게 열정을 요구하지는 말되, 나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자세는 잊지 말자고 다짐해 본다.” 법률신문에 기고된 천경훈 교수의 ‘열정에 관하여’라는 칼럼의 한 구절이다.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 연구자로서의 고민,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유려한 필력으로 담아낸 천경훈 교수의 법률신문 칼럼에 대한 동문의 관심이 높다. 그의 칼럼들을 선정하여, 그 속에 담긴 고민과 열정에 관해 물었다.

1. 글쓰기와 업 쌓기(2019-09-02)

㉮ 법조인이라는 직업은 글쓰기를 업(業)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글이 업(業)으로 쌓인다는 고민이 담겨있는 글이었다. 천경훈 교수가 생각하는 ‘법조인의 글쓰기’란 어떤 것일까?

㉮ 글의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소송의 서면이라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판결문이라면 공정한 심판자의 위치에서, 논문이라면 엄정한 학술적인 기준에 의한 자신의 기준 아래, 칼럼이라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게 써야 할 것이다. ‘법조인의 글쓰기’ 역시 글의 문체, 스타일 등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본다. 글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2. 좋은 강의, 나쁜 강의(2022-10-06)

㉮ 로스쿨 교육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고민이 담긴 칼럼이었다. 실무가 양성과 변호사 시험 그 사이에서, ‘로스쿨의 교육’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 이 강의를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강의가 최고의 강의인 것 같다. 정보이든,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든, 전문성이든, ‘이 강의를 통해서 비로소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로스쿨의 교육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사이트’를 기를 수 있는 강의를 있어야 할 것이다.

3.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2021-05-20)

㉮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긴 글이었다.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

㉮ 현행 변호사시험은 지나치게 많은 지식을 요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학생들을 괴롭게 한다. 민·형사를 중심으로 송무 분야

의 판례 암기에만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시험의 출제 방향이 문제다. 이는 과목의 개설, 수업의 선택, 로스쿨 운영방식에 있어 지나치게 변호사시험에 집중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 미리 접근하고 고민하여 ‘궁극적 실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험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법학위기론에 관한 한 斷想(2021-10-14)

㉮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법학위기론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법학의 미래에 대한 학자로서의 고민이 담긴 글이었다. 최근 법학 연구의 동향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 분야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실정법적인 분야는 비록 전업 연구자가 부족하지만, 실무와 겹겹하는 신규 연구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일부는 학계, 일부는 실무에 남아 있으면서 학구적인 실무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본다. 한편 국내 실정법과 거리가 있는 기초법학의 경우에는, 전업 연구자들의 양성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변호사 시험의 압박으로 인한 학문 고사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본다.

5. 열정에 관하여(2019-06-03)/이직 열풍(2022-01-27)

㉮ ‘열정에 관하여’는 법조인의 일과 열정에 대한 통찰력으로 높은 관심이 있었던 글이었다. ‘이직 열풍’에서도 젊은 법조인들의 잃어가는 열정에 대한 분석을 담아냈다. 법조인이 가져야 할 ‘열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열정 역시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본다. 열정을 다하는 일은 손익분석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는 근시안적으로만 손익분석의 시계(視界)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열정을 다하는 일이 손해로 느껴질지 모르더라도, 3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무언가를 열정 있게 했던 경험이 가치가 있으리라 본다.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에게 무작정 열정을 강요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일단 ‘나부터 열정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임하려 한다. 열정을 다하는 일은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말과는 또 다르다. 초심은 항상 잃기 마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초심을 가질 대상을 찾으며 다시 열정을 다해왔던 것 같다.

천경훈 교수는 마지막으로 법률가란 내가 공부하는 게 곧 밥벌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좋은 직업이고, 그 점에서 후배들이 보람을 느꼈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법률가를 업(業)으로 삼고 자신이 쓴 글을 업(業)으로 남겨왔던, 천경훈 교수의 열정이 담긴 한마디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원 학생기자

국제사법적 사고의 빈곤에 맞서다



이 종 혁 교 수

이종혁 교수는 2022년 9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 부임했다. 서울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전임교수 임용은 처음이다. 그는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이다. 그는 지금의 성취가 운이 따랐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운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역설적 표현처럼 그의 운 역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비로소 기회로 바뀌었음을 인터뷰 줄곧 느꼈다.

Q. 로펌에서 강단으로 무대를 옮긴 이유

학계에 관심은 있었지만, 로펌을 이렇게 빨리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연히 주어진 기회에 학계에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7년 8월 로펌에 입사해서 해외 대체투자 펀드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시차와 관계없이 외국 로펌과 협업하느라 새벽에 퇴근할 때도 많았지만, 일 자체는 즐거웠어요. 전공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어서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2018년 11월 한양대 로스쿨에서 국제거래법 교수를 뽑는데 의향이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법무관 때와 로펌에서 일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논문을 몇 편 썼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연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Q. 국제거래법, 국제사법을 전공한 계기

처음부터 국제거래법, 국제사법을 전공하겠다고 계획하였다기보다, 운 좋게 이들 분야의 재미를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법대에 입학할 때 국제사회의 법률문제에 막연히 관심은 있었지만, 전공하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법대 2학년 때 석광현 교수님을 찾아뵈 기회가 있

었는데 “아마존닷컴에서 책을 샀는데 배송 중에 분실되면 어느 나라에서 어느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나?”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대답을 잘 못하고 있으니 ‘트리플A(미국중재협회) 중재라는 것이 있고 워싱턴주법에 따라 해결한다.’라고 하셨어요. 갖 계약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신선했습니다. 그렇게 법대 3학년 때 국제거래법, 국제사법을 들었습니다. 공존하는 각국 법체계 중 문제되는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선택하는 국제사법의 메커니즘이 신기했습니다. 로스쿨 때 뮌헨대학교의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도 하고, 박사과정 첫 학기 때 서울대 법학지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문을 신기도 했죠.

Q. 국제사법의 존재 의의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외국판결 승인·집행이라는 국제사법의 3대 쟁점은 국제거래의 개별 분야에서 항상 등장합니다.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라면 모든 분야를 횡으로 관통합니다. 그러나 대법원마저도, 엄연히 실정법으로서 존재하는 국제사법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한 국내 사건으로 취급하여 우리 민법·상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죠. 석광현 교수님께서 ‘국제사법적 사고의 빈곤’, 즉 국제사법이라는 ‘있는 법’을 적용조차 하지 않는 문제를 줄곧 지적하셨습니다.

Q. 국제사법과 관련하여 앞으로 연구할 주제

공시서류 부실표시라는 특수불법행위의 준거법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제불법행위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국제가족법에 관심이 좀 있었고요. 요즘은 국제사법적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 때 주월한국군에게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해서 얼마 전에 1심에서 승소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1심에서 재판부에 따라 승소하기도 하고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에는 국제사법적 논점, 정확히는 체계제법과 시제법을 포함하는 저촉법적 논점이 많이 있는데, 외면받고 있는 논점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국제사법은 전선이 상당히 넓습니다. 석광현 교수님께서 즐겨 쓰시는 표현인데, 국제사법 연구자는 ‘장돌뱅이’처럼 여러 학회를 다니며 ‘국제사법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실질법 지식’을 채워가야 하는 숙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가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꽤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학생기자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가 아는 13기 김두빈 학생은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신중한 사람이다. 앞사람이 주문을 마칠 때까지 메뉴를 고민한다거나, 학부를 다니며 성숙한 진로 경험을 찾아 여러 인턴에 나간다가, 유행이 끝나갈 무렵에서야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인생 일대의 선택 앞에서는 누구보다 주저함이 없어 보였다. 눈이 오는 겨울날, 교대역 인근 설렁탕집에서 만나 그 이유를 물었다.

2022년 8월 결혼식 이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선 바쁜 와중에도 결혼식 자리를 찾아준 수많은 친구와 지인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뒤늦게 알았는데, 결혼식 당일에는 13기 동기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형법 특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에서 겨울이 되었네요. 그 사이에 결혼 생활에 패턴을 잡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서울대 학부 1학년 때 교양 수업에서 처음 만났고 그때부터 9년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네요. 당시에 아내의 인기가 많았는데, 돌이켜보면 많은 기회를 빼앗은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다행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과의 결혼은 학부를 다닐 때부터 가졌던 확신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혼자 있을 때보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학업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는 것에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학교 공부와 달리 결혼을 준비할 때는 글로 쓰여있지 않은 관습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물어보



김 두 빈 학 생

고 하나씩 새롭게 배우느라 애먹었어요. 주중에는 로스쿨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희생하고 배려해준 덕분에 무사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인터뷰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제가 기라성같은 선배님들 사이에 설 자리가 있을지 고민했어요. 혹시 결혼 준비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비교적 최근에 결혼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응하게 되었어요.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주신다면 언제든 상담해드릴게요.

결혼 전과 후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음가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첫째는, 추상화 수준을 낮추는 대신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인생의 여러 방향과 가능성을 열추 비교하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또 가정과 양립 가능한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전보다 커졌다는 거예요. 항상 이 순간에 충실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아직 6개월 차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지만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듯, 이른 결혼도 마찬가지로일 것 같아요.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사랑과 이해로 품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요.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안재서 학생기자

오늘도 법대에는 불이 켜진다



이삭 · 광진희 주임

매년 수많은 사람이 학교를 떠나고 새로 들어오지만, 법대는 그 위치를 지키고 있다.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화장실 휴지는 항상 채워져 있다. 학교가 존재하고 제구실하는 당연한 현상, 그 뒤의 당연하지 않은 노력을 취재하였다. 서울법대의 무던한 배경, 행정실 주임들을 소개한다.

교무행정실 이삭 주임

교무행정실은 법대의 소프트웨어를 책임진다. 교원과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고, 다니고, 나가는 과정을 조력한다. 2022년부터 교무행정 담당관을 맡게 된 이삭 주임은, 서울대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5년간 근무한 이후, 법인화 1기 때 교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회계법인 시절에 관해 묻자 “지금도 꿈에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압축적으로 성장한 시기”라고 답했다. 엄격한 선임에게 인정받고자 새벽까지 공부했던 신입 사원은, 담당관이 된 지금도 교수와 학생에게 자극받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딸내미가 우스갯소리로 아빠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다시 갈거냐고 물어요. 사실 관리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 신경 쓸 일이 더 많기도 해요.” 예전과 달리 이제는 서서히 내려오기 위한 공부라고 말하는 그의 텅텅한 자평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처음부터 업무가 익숙했던 것은 아니다. “제 예상과 다른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고, 원래 회계가 익숙했던지라 모든 게 새로웠어요. 아래 직원들께 알려주지는 못할망정 하나씩 배우면서 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새로운 자극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5년 넘게 제가 일해 온 회계 부서는 대표적인 Back office입니다. 교무행정은 학교가 실제로 돌아가는 최전선인 앞단에 위치한 업무로 큰 틀에서의 이해도를 높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무행정 업무에 관해 기억에 남는 것은 학생들이라고 한다.

“학생들이 행정실에 들를 일이 많지 않아요. 기한을 놓친다거나, 요청사항이 있는 친구들이 찾는 정도예요. 다들 똑똑하고 미래의 법학도이니만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 요청하기 때문에, 되는 방향으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가끔 지나친 요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상처받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임을 알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울지가 최대 관심이자 보람이라고 덧붙였다.

골프 레슨 프로 자격증을 따고, 최근에는 피아노도 배우고 있다. 늘 주변에서 배울 점을 찾고, 이들을 도울 지점을 고민하고, 또 꾸준히 공부와 취미 개발에 정진하는 모습을 보며, 무던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의 단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1,300여 명의 학생과 60여 명의 교수가 편히 학교생활을 하는 뒤에는 이삭 주임의 애정과 무던함이 있다.

서무행정실 광진희 주임

서무행정실은 법대의 하드웨어를 책임진다. 시설, 재정, 그리고 직원 인사를 담당한다. 2021년 7월부터 서무행정 담당관을 맡아온 광진희 주임은, 17년째 서울대에 재직 중인 베테랑 직원이다.

중학교 영양사로 1년 근무한 이후 2006년부터 서울대에서 근무했다. 관악과 연건을 오가며 여러 부서에서 일을 맡은 경험은, 새로운 문제에도 유연히 대처하는 능숙함으로 이어졌다. 물론, 처음부터 지금의 업무가 익숙하였던 것은 아니다. “16년간 교원인사, 장학, 연구, 비서 업무만 담당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서무를 맡게 되었어요. 이삭 주임님께 회계를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일했네요.”

한창 회계 마감으로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묻자, 의외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교수님들의 사진은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성함과 얼굴 매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교수님들 최근 사진을 찾아보며 한 분씩 익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수님은 저를 모르실 것 같은 거예요. 교수님들이 제가 학교 직원인 것을 알아봐 주시고, 더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도록 얼굴을 알리고자 나왔어요.” 하지만 지면에 큰 사진을 첨부하겠다는 기자의 제안에 절대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할 만큼, 여전히 민망한 눈치였다.

법대만의 특징에 관해 물었다. “다른 단과대와 비교했을 때, 특징은 학생의 행사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끌고 간다는 점이에요.” 직원이 기획 및 세팅을 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여타 단과대와 달리, 법대는 학생회가 공문 작성부터 육체노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기본·비교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등… 물론 저희가 검토하지만 대부분 양식을 잘 맞춰와요. 공

여행지에서 온 편지

2023년 1월 14일 제12회 변호사시험이 끝났다. 여행 제한이 대폭 완화된 덕에, 12기 수험생들은 제각각 열람실에서 마음으로만 품었던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해방감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여행지에서 온 두 편의 편지를 공개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안재서 학생기자

안녕하세요. 12기 조상우입니다. 여행이란 ‘비일상에서 일상보다 더 나은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남들이 가지 않는 여행지를 한 번쯤 가보는 것이 여행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책을 읽기 위해 시선이 아래를 향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시선을 위로 하여 별을 볼 수 있는 사막으로 떠나고자 결심했습니다. 고생 끝에 도착한 사하라사막에서는 낙타를 타며 밤하늘의 별 자리들을 원 없이 볼 수 있었고, 일주일 전까지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막의 밤은 정말 출더군요. 저는 ‘릭서리 호텔’을 선택했지만, 전기는 통하지 않았고 정말 오들 오들 떨면서 잤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고생하더라도 일상에서 벗어나 낭만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모로코 사막 투어를 적극 추천합니다!

모로코에서, 12기 조상우



부만 할 것 같았는데 너무나 의외이고 대단해 보였어요.”

인터뷰 장소로 이동하는 1분 남짓 시간만으로도, 광 주임의 업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김장리홀은 난방기가 오래되어서 인터뷰가 끝날 때가 되어서야 따뜻해질 거예요. 외국 업체라서 AS 신청을 해도 시간이 좀 걸려요.” 우연히 마주친 시설 직원과 짧은 담소를 나누더니 끝에는 “혹시 모르니 지난번 건강검진 자료는 다 처리했는데, 따로 검사 받아 보세요.”라고 얘기한다. 종종 헬스장을 간다는 기자에게는 “그러면 관리팀 김00 선생님 만난 적 있죠?” 묻는다. 오늘도 따뜻한 난방이 나오는 데에는 광진희 주임의 세심함과 책임감이 있다.

이들 덕에 오늘도 법대에는 불이 켜진다.

법학전문대학원 안재서 학생기자



안녕하세요. 12기 김훈섭입니다. 저는 변호사시험이 끝나고 발리 한 달 살기를 시작하여 매일 새벽 서핑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서핑을 해왔으나, 로스쿨을 다니는 동안 자주 하지 못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원 없이 서핑 하는 것이 이번 여행의 목표였습니다.

일반적인 관광객들은 ‘꾸파’라는 유명한 바다에서 주로 서핑하지만, 저는 한 달 동안 발리의 다양한 서핑 스팟을 경험해 보고자 매일 새로운 곳을 찾습니다. 게게르, 판중 베노아, 스랑안 등 발리의 바다는 모두 제각각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롱보드의 성지인 바투볼롱에서 했던 서핑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서며 위대한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초마다 오는 파도는 단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파도는 각각의 모양과 속도를 가지고 있고, 서퍼들은 그 파도에 맞추어 가장 적절한 타이밍과 자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 프로 서퍼는 이를 두고 “서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저를 포함한 많은 서퍼들에게 굉장한 울림을 주는 문구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매 파도마다 새로운 인생을 담아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발리에서, 12기 김훈섭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입상을 위한 안내서



이원호 · 이정민 · 김상균 · 하성창 · 최민서 학생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예비 법조인에게 권리구제 절차의 대표적인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경연의 장이다. 2022년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회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우리지금모행’ 팀을 만났다. 기자 역시 팀원으로서 하계방학 내내 함께 밤새우던 동기들과 다시 모여 감회가 새로웠다.

Q. 대회 준비 중 힘들었던 점과 그 극복

이정민 | 예선에서는 인용·기각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어 기각 측을 선택했다. 하지만 본선에서는 모두를 다루어야 한다. 그렇기에 인용 측 논리를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각 논거와 상충하는 측면이 발생해 어려웠다. 극복을 위해 입장별로 3인씩 팀을 짝지어 집중했다. 한편 서면의 분량이 아주 짧아서 내용을 압축하는 절차도 힘들었다. 특히 ‘이 내용은 꼭 가져가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종종 대립했다. 사소한 논쟁이 아니라, 큰 그림을 채색하는 건설적 과정이 되도록 목차만 따로 떼어 정리했다.

Q. 본 대회 입상을 위한 핵심 역량

김상균 | 분업보다는 ‘협업’이다. 대회 특성상 통일된 논리를 바탕으로 서면을 자신감 있게 작성하고 내보여야 한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 목차, 저 사람은 저 목차 하는 식으로는 오히려 어렵다. 모든 팀원이 「행정심판법」과 문제에 관련된 판례를 철저하게 숙지를 한 뒤에 모였다. 팀원 모두가 대회를 치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법적 지식이 공통되어 있었기에 통일감 있는 그림이 그려졌다. 다들 각자의 쟁점에 대해 조사를 열정적이고 주도적으로 하여, 세밀하고 창의적인 검토도 가능했다.

Q. 대회를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원호 | 우리 팀은 인용, 기각을 세 명씩 나누어 준비했다. 추첨 결과는 대회 직전에 나오기에, 인용 측에서도 열심히 연습했다. 하지만, 본·결선 모두에서 팀은 ‘기각’ 제비를 뽑았다. 결국 경연장에서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것이 당시에는 아쉬웠다. 하지만 내가 작성한 인용 논거로, 기각 측을 준비한 팀원들이 반박을 구성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상대 팀의 주장을 더 수월하고 논리적으로, 제시간에 반박해냈다. 나 대신 마이크를 잡은 팀원을 도우며 ‘교학상장’의 정신을 배워간다.

최민서 | 실무적인 감각을 접했다. 선행학습, 인터넷 강의처럼 체계적으로 지식을 암기한다는 느낌과는 다르지만 직접 검색하고 대화하며 어떤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터득했다. 특히, 학교에서의 시험 문제는 반론의 여지가 크게 없었던 반면 대회를 통해서는 두 가지 입장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능력, 즉 유연한 ‘포섭’을 배웠다.

Q. 수상 소감, 후배들에 대한 조언

하성창 | 내가 잘할 수 있을가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는데, 실제로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후배들 역시,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해오셨을 것이 분명하다. 스스로를 믿고 일단 도전하시라. 물론 팀원들과의 충돌이 존재하겠으나 서로의 의견이 양립하도록 최대한 시도해보시라. 최종 마감까지의 압박을 함께 견딘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올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학생기자

조영래 변호사처럼, 열정으로 이성을 주도하라



김병민 학생

영화 ‘금발이 너무해’의 주인공은 말한다. “법은 열정을 배제한 이성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열정은 법에 있어서 중요하다. 과감한 신념과 강한 자신감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다.” 법학도에 있어 열정은 무엇인가. 연료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태워야 하는가. 법조계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나선 12기 김병민 원우에게 답을 들었다. 법무부가 검사 채용에서 정신질환 치료 여부를 묻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됐고 법무부는 수용했다. 인터뷰 내내 뿔어내던 그의 열정을 그대로 옮겼다.

“정신질환 토픽에 관심을 가진 건 개인적인 사정, 그리고 약간의 용기 덕입니다. 로스쿨 재학 중 인권법학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학회원들과 밥을 먹다가 ‘로스쿨 재학생들은 당장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법조계는 왜 아직 구시대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어요. 특히 저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피부를 뜯는 습관이 있어요. DSM(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5상 정신질환에 해당합니다. 항우울제를 받으면 완화되는데, 정신과에 가면 불이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때 ‘치료받고 싶은 상황인데, 우려가 커서 못 받는 불이익한 지위다.’라는 식으로 적격이 있음을 논증했어요.”

“법조계에서의 비전형적인 차별에 관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차별, 특히 정신질환과 관련된 이슈는 되게 모호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재판연구원 선발 과정에서 법원은 최근 5년 사이 입원 기록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직무

상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기간 제한 없이 써라.’라고 해요. 직무상 문제 옆에 괄호로 ‘정신질환’이라고 쓰여있고요.”

“비효율적이더라도 불법적인 차별은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정신질환 관련 평등을 구현하는 것은 더 효율적이고, 법적 안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령, 법무부나 법원의 차별 목적이 정당하다고 합시다. ‘정신질환이 있는 자는 업무에 적합하지 않아 배제한다.’라는 목적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채용된 공직자는 정신적 문제를 평생 안 겪을까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성인 평생 유병률이 25%입니다. 또, 이미 채용된 이상 그분들이 병을 발할까요? 만약 나중에 밝혀진다면, 그때까지의 업무는요? 결국 법적 안정성과 효율의 차원에서, 적절하게 치료받고 있는 정신질환 환자를 채용함이 타당합니다.”

“후배들이 선배들의 열정을 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로스쿨은 공부에 치우친 곳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낮고 그러니 사고의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워하는 조영래, 이태영과 같은 선배님들의 사회적 책임감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점입니다. 전업으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배들이 좀 쉽게 인권에 관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유민환, 주산환 등 공간이 많아요. 조영래홀은 처음 들으실 겁니다. 5층 자습실 구석, 작은 공간에 논문집과 유고집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동력을 충전했어요. 후배들이 이 기사를 읽고 관심을 두어 리서치를 해서, 진전된 결과를 함께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학생기자

교수님의 이중생활

멀리서 바라본 서울법대의 교수님들은 그야말로 법의 현현(顯現)이었습니다. 화려한 이력과 완벽에 가까운 학문적 업적들을 보면, 교수님들께서는 여가 시간에 법조문을 외우고, 꿈에서도 판례를 연구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본 교수님들은 달랐습니다. 법학에의 몰입만큼이나 등산을 하고, 와인을 마시며, 문구류를 수집하는 등 취미에 진심인 분들이었습니다.

이번 기획 기사에서는 엄격한 교육자, 예리한 연구자의 모습 뒤에 갖춰진 교수님들의 취미 생활을 취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법대 교수님들의 멋과 인간적 면모를 복원하고 교수님들의 삶에서 법을 빼면 무엇이 남는지 관찰했습니다.

인생의 은유로서의 와인

— 이근관 교수

서초동 골목에 있는 조그만 가게에서 이근관 교수를 만났다. “중요한 것은 가격(price) 보다는 가치(value)라고 생각한다.”며 그가 들고 온 와인은 아들이 태어난 해인 2001년산 화이트 와인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안주로 와인 한잔을 기울였다.

이근관 교수에게 와인을 마시는 일은 곧 인생을 마시는 일이다. 특히 프랑스 와인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것이 인생과 닮아서이다. “프랑스 기후는 사실 와인을 재배하기에 안정적이지 않다. 날씨가 흐릴 때, 비가 내릴 때, 서리가 내릴 때도 많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와인의 베리에이션이 많고, 빈티지가 중요해진다.” 또 프랑스 와인에는 예측 불가능에서 오는 설렘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행복을 발견할 때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닮아있는 것 같다.”

와인에 대한 관심의 시작은 이국적인 유럽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군사정권 아래 해외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시기, 청년 이근관은 친구들과 함께 ‘마주앙’을 마시며 유학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국으로 유학 간 이후에는 와인의 세계에 대한 안목이 넓어졌다.”는 그는 얼마 전에는 ‘인생의 은유로서의 와인’이라는 주제로 케임브리지 동문회에서 특별 강연을 할 정도로, 영국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와인 애호가이다.



와인은 사람을 만나는 데에 있어 좋은 윤활제 역할이었다. 다른 교수들과의 중강 모임이 있을 때 와인을 어떤 순서로 먹으면 좋을지 등에 이야기하며 법대 비공식 ‘소믈리에’의 역할을 해왔다. 학회, 조모임, 지도반 학생들과도 와인과 함께 피자를 먹는 모임을 종종 가졌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와인을 접할 기회가 많은데, 미리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는 그는, 인생의 은유로서 와인을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조언해왔다.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그는 “우리 아들과 다음번에 마실 와인이 최고의 와인이다.”라고 답했다. “처음에는 레드 와인을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는 아내를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그는 지금도 아내와 함께 먹을 와인을 고르고 안주를 만들기도 한다.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과 함께 와인을 마실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그의 미소에는 와인 한 잔 속 인생을 함께한 이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었다.

사람을 닮은 산을 오르다, 세계의 명산대천 기행



— 최봉경 교수

최봉경 교수는 등산에 대한 건강하고 올창한 철학으로 꾸준하게 산에 오른다. 72동 6층, 관악산 정상이 맑게 펼쳐진 그의 연구실을 찾았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갈아 내려주신 커피를 즐기며 산행과 동고동락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막 지난주에 끝난 연구년, 독일과 일본 그리고 호주에 다녀왔다. 지도와 포스트잇을 꺼내어 호주의 명산들을 적어주셨다. “Snowy Mountain이라고 되게 좋아요. 지도 보면 허영잖아. 사람이 거의 안 살아요. 캥거루를 훨씬 많이 봤지.” 낮에는 캥거루가 자고 있다고 한다. 가족들이 한데 모여 맞대고 자기에 동치가 큰 고목같이 보인다. 지도 위의 핀을 나고야로 옮겼다. 일본은 대부분 산이 해발고도 3,000m 이상이라 장비를 지참하지 않고서는 등정이 어렵다. “내가(연구년 중) 일본을 9월 말에 갔거든. 적응하고 이제 백산 입산을 위해 등록하려고 하니 기간이 끝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미뤘죠.”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폭 쉬셨냐고 여쭙자 NHK 선정 100대 명산 중 20개는 틈틈이 다녀왔다고 하셨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말이다.

우리와 일본의 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도 들었다. 일본은 산사태를 그냥 피해 다닌다. 산행하는 자가 그 리스크를 감수한다. 정부는 자연이 스스로 복원할 때까지 놔둔다. 우리는 다르다. 산 자체가 대부분 아기자기하다. 등산 인구가 1천만 명에 달하니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같은 산에 서초구, 경기도, 서울시의 이정표가 나란히 깔려있다. 산을 가까이할 수 있는 조건이기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산에 여유를 너무 주지 않는다. “산에는 무너지기 쉬운, 균형이 깨지며 약해진 너털지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산은 균형을 잡아가요. 굳이 시멘트를 바를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산은 사람을 닮아있고, 사람도 산을 닮았다. “약은 조력자입니다. 약만으로 몸의 균형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면역체계가 스

스로 치료해야 해요. 우리는 성격이 너무 급합니다. 반면 미국, 호주는 어마어마한 국립공원 관리체계가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산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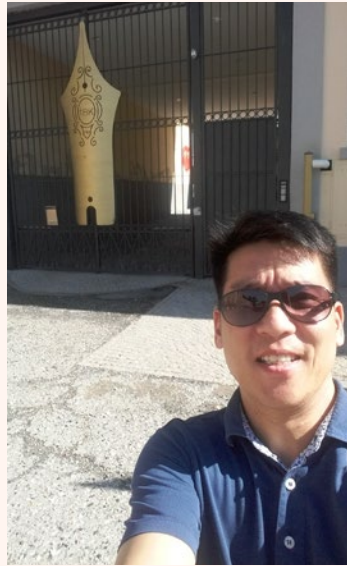
대화가 끝나니 2시간이 지나있었다. 누구보다 왕성한 그의 바깥세상에 대한 호기심에 매료되어 다음 약속에 늦는 줄도 몰랐다. 눈앞에 놓인 뾰족한 덩굴 하나하나 쳐다보기에 지칠 때쯤, 교수님의 말씀과 함께 넓고 시원한 산 정상에 올라서 핸드드립 커피를 함께 맛보는 것은 어떨까.

하늘의 푸르름과 바다의 넓음을 동시에 보다



— 최석환 교수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의 푸르름은 알지만, 큰 바다를 보지 못한다. 좁은 우물로 보이는 하늘에 집중하여 하늘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지만, 더 큰 바다가 있는 줄은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취미는 세밀한 부분에 몰입하고 음미하면서도, 동시에 넓은 시야를 갖추게 한다. 최석환 교수에게는 문구류 수집이 그러한 취미다. 연구실 곳곳에는 수십 개의 가위, 클립, 샤프심과 만년필들로 채운 그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서 공부와 함께할 수 있는 취미로 문구류 수집을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각각 구매한 펠리카 만년필 두 자루는 그가 문구류 수집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준다. 두 자루의 만년필 모두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에 등장하는 만년필 장인에게 직접 닦을 걸었다고 한다. 어깨 근육의 상태, 필압, 만년필의 사용 용도까지 확인한 후에야 받을 수 있는 닦은 그야말로 몸과 펜이 혼연일체 된 느낌을 주게 된다. “만년필 닦을 가는 장인을 보며 우리는 법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반성하기도 합니다. 깊이 몰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경지입니다.”



동시에 문구는 최석환 교수가 세상의 흐름을 관찰하는 도구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에서 유명 만년필 브랜드인 오로라(Aurora)의 공장에 방문하고, 최초의 대학 중 하나인 볼로냐 대학에서 노트를 구매하면서, 이탈리아의 문구들이 심미성보다 효율성을 찾는 경향을 통해 현대 이탈리아의 변화를 체감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국내외의 문구 대전에서 지속가능성이 핵심 테마로 부상하는 것을 관찰하며,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했다. 조그마한 문구 하나에도 도시, 국가, 나아가서 세계의 변화가 담겨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석환 교수는 문구를 통해서 만년필 닦에서 세계까지 본 것처럼, 법학 공부 역시 두 가지 시야를 고루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구류 수집을 통해서 말했지만,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로서 장인정신을 가지고 치밀한 법도그마틱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사회의 변화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푸르름과 바다의 넓음을 동시에 보는 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엽, 안재서, 이승환, 최승훈 학생기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소 식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 개최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가 2022년 9월 5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김중보 원장, 전종익 교무부원장, 최준규 학생부원장 등 보직교수들이 (1) 법학전문대학원 소개 (2) 2009 ~ 2022학년도 입학전형 결과 (3) 2023학년도 신입생 선발계획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어서 법학전문대학원 홍보대사가 로스쿨 생활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사전 접수 후 참석 확인 문자를 받은 선착순 대상자에 한정하여 현장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여석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84동 1층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설명회 현장영상을 동시 송출하기도 하였다.



2022년 서울법대 한마당

2022년 9월 13일 법과대학 17동 앞 광장에서 '2022년 서울법대 한마당' 행사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지되었으나 2년 만에 재개된 이번 행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수 학생과 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공익기금에서는 부스를 설치하여 냉면과 크로플을 판매하고 수익의 일부를 공익변호사지원기금 및 운영비에 적립하는 등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를 주관한 박민철 학생회장은 "법대 한마당은 법학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법대 고유의 유서 깊은 행사였고 이를 재개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트램펄린이 설치되는 등 학생들이 잠시나마 학업을 잊고 학우들과 동지애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권영준 교수,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수상

2022년 10월 26일 권영준 교수가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2022년 10월 26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당구석홀에서 개최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권영준 교수는 <민법3> 등 민사법 분야의 핵심 교과를 강의하며 학생들의 호평을 받고 있고, 협업기반교육, 플립러닝, 강의참여약정서 제출 등 다양한 교수법을 시도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실무와 이론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는 <민법II> 교과서 집필 등을 통해 교육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하였다. 학문 후속세대 양성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예비학자 양성의 틀을 강화하였고, 하버드대, 동경대 등 해외 대학 강의와 학술 발표를 통해 한국법 해외 교육에 공헌하였다.

2022년 11월 16일에는 권영준 교수가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수상기념 특별 강연을 진행하였다. 15-1동 302호에서 진행된 이번 특별강연은 '교육자로서의 법학교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권영준 교수는 교수에 취임한 이후 계속해 온 법학교육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교수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교수의 길을 꿈꾸었고, 교육자이자 연구자로 살아가는 지금도 항상 설레고 행복하다는 소회로 시작됐다. 한때 교육자로서 권태기도 있었지만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통해 권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서울법대가 교수들이 교육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법학교육에 있어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강조했다.

권영준 교수는 이번 계기를 통해 교육자로서의 자신에 대해 다시 회고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참석자들의 박수갈채와 함께 이번 특별 강연은 마무리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자유전공학부 협약식

2022년 10월 27일 법학전문대학원과 자유전공학부가 강자개설에 관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전공 탐색 단계에서 수강하는 [주제탐구세미나]에 법학 관련 주제를 다루는 강자를 제

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 선택 및 학생설계전공 설계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박은정, 김도균 교수 등이 자유전공학부에서 [주제탐구세미나]를 맡아왔었는데, 이번 협약은 이러한 수업 개설에 관한 사항을 공식화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개설되는 교과목의 공식 명칭은 "자유전공학부 [주제탐구세미나2]"로 정해졌고, 연 1회 2학기(가을학기)에 개설되는 것으로 협약되었다. 향후 진행되는 수업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공동현 교수가 간사를 담당한다.



김형석 교수,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 수상

2022년 10월 31일 김형석 교수가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2022년 10월 31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개최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형석 교수는 우리나라의 민사 실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실천적 문제에 대해 역사적이고 비교법적 방법의 도움을 받아 해석론을 개선하는 연구를 해왔다. 논문들의 주제는 재산, 친족, 상속 등 민법의 전 범위에 걸쳐 있으며, 학계와 실무에 의해 지속적으로 참조되고 있다. 김형석 교수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민사법학회 학술상, 가족법학회 논문상, 한국법학원 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그 외에도 입법 과정에도 관여해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과 민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조력했고, 그 기여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022년 12월 7일에는 김형석 교수가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 수상기념 특별 강연을 진행하였다. 15-1동 302호에서 진행된 이번 특별 강연은 '이혼법의 사상사'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형석 교수는 교수에 취임한 이후 계속해 온 법학교육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법률가들끼리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존재하며, 이혼법 영역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도입으로 시작되었다. 김형석 교수는 로마법, 게르만법, 중세 교회법, 프로테스탄트 시기와 그 이후 여러 사상가들에 이르기까지 결혼과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해온 과정을 계약법적 맥락에서 조망하였고, 현재 이러한 시각이 세계 각국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설명하였다. 설명의 말미에는 결혼에 관한 사상사는 '단선적인 진보'가 아닌 다양성과 다채로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소회로 마무리 지었다.

김형석 교수는 이번 계기를 통해 '질서-제도로서의 혼

인'과 '계약으로서의 혼인'이라는 두 축을 대조하며 이혼법의 사상사에 연구를 다시금 정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참석자들의 박수갈채와 함께 이번 특별 강연은 마무리되었다.



제11회 학생 홍보대사 임명식

제11회 학생홍보대사 임명식이 2022년 10월 28일, 17동 207호에서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김동현, 박성호, 윤휘, 이현지 학생이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으며, 이들은 앞으로 1년 간 입학설명회, 국제교류외빈방문을 포함한 학교 행사를 지원하게 된다. 임명식은 임명장 증정과 단체 사진 촬영으로 이루어졌다.



2022년 가을맞이 점심

2022년 11월 8일 법학전문대학원 서암관에서 '가을맞이 점심'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지되었으나 2022년 거리두기 제한이 풀림에 따라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행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학생 및 교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법대 구성원들이 함께 모였다. 스탠딩 파티로 진행된 식사 자리에서는 많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자리를 오가며 담소를 나누었다. 김중보 원장은 "가을을 맞아 구성원이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즐기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캠퍼스에 가득한 가을 기운을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제3회 서울법대 모의법정 대회 개최

2022년 11월 14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제3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를 개최되었다. 로스쿨 실무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법정변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모의재판> 교과목을 수강하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전원이 3~5인씩 팀을 이루었고 예선과 본선을 거

쳐 2팀이 결승전에 참여하였다. 결승전에 오른 변호인팀(신유준, 안재서, 우영은, 조범연, 한동희)과 검사팀(김나련, 백민령, 백민석, 이윤중, 임윤배)은 재판부(김재형 전 대법관, 전원열 교수, 이상원 교수) 앞에서 열띤 경연을 벌였다. 대상은 변호인팀이 차지하였고, 최우수변론상은 검사팀의 백민령씨가 수상하였다.

2021년 제2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재판부와 학생들만 참여하여 온라인 생중계를 통하여 경기를 관람하게 했다면, 올해는 모의재판을 듣는 전체 학생들과 교수진이 함께 대회 현장의 열기를 체험할 수 있었다.

재판장을 맡은 김재형 전 대법관은 강평에서 "변호인팀과 검사팀의 서면과 변론이 지금 바로 실무에 뛰어든 정도로 뛰어나며, 앞으로도 법학 공부에 정진해서 훌륭한 법률가가 되길 바란다"라며 참가팀들을 크게 격려했다.



제7회 학봉상 시상식 개최

2022년 12월 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제7회 학봉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학봉상은 재일 교포 실업가 고(故) 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장학회 후원, 서울대 일본연구소 협찬을 받아 연구논문, 법학 논문, 언론보도 부문으로 시상한다.

연구 논문 부문은 'AI 시대,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공모했고,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정종구 씨가 우수상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정지혜/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부생 김하은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학 논문 부문은 자유주제로 모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수상하였고, 류지원 학생이 대상, 김훈섭/박재경 학생과 김지훈 학생이 우수상, 김현재/한병하 학생과 윤성제/전재욱/김동운 학생이 장려상을 받았다.

언론보도부문은 한일 관계 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 언론보도 및 언론인을 추천받아, 마인드포스트 박종연 기자가 대상을, 뉴스텐스 서태고 기자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022년 12월 21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전문석사 과정)은 총 150명으로, 행사는 원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약 한 시간 동안 최준규 학생부원장의 교과과정 및 학생복지 안내, 서울대 로스쿨 학생홍보대사와 학생회의 학교생활 소개 등이 이루어졌다.

행사 후 학생회 주관으로 학내에서 조별로 신입생과 재학생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민사 대한변협회장상, 법률신문사장상, 단체 자유상 수상

2023년 1월 3일 대법원이 주최하고 사법연수원이 주관하는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본-결선 경연이 치러졌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은 비대면 경연이 진행되었으나, 이번 대회에선 법정 변론의 현장감을 최대한 조성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실제 법정에서 경연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에서 총 146개 팀(민사 104개 팀, 형사 42개 팀)이 참가했고, 민사에서 16개 팀이, 형사에서 16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민사 부문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솔·김병렬·이승현 팀이 대한변협회장상(2위), 이수현·김소연·정예림 팀이 법률신문사장상(4위)을 수상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학교에 수여되는 단체 자유상을 수상하였다.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헌드레드(hundred)' 팀 우승

2023년 2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드레드(hundred)'팀이 헌법재판소장상(대상)을 수상했다. 그 밖에도 '업!(UPI)', '우리모하니' 팀이 각 은상을, '현명한 대리인', '삼각편대' 팀이 각 동상을 수상하여 수상팀 8개 중 5개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공법을 헌법재판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55개 팀(165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8개 팀이 최종 본선에서 변론 능력을 겨뤘다.

제13회 모의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 법학전문대학원 팀 우승

2023년 2월 18일에 열린 ‘제13회 모의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The 2023 Seoul Vis Pre-Moot)’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강노윤, 김동하, 김태영, 박서현, 이지현, 이휘준)이 우승을 차지했다.

약 40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8개의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경연하였다. 서울대 로스쿨팀과 연세대 로스쿨팀이 겨룬 결승전의 문제는 “드론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였으며, 김·장 법률사무소의 Joel Richardson, 법무법인 광장의 Robert Wachter, 미국 로펌 Covington & Burling의 정경화 변호사가 중재인을 맡았다.

이번 대회는 서울대 로스쿨이 대항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와 공동 주최하였으며, 법무법인 에이펙스, 총정, 태평양, KCL,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KL 파트너스, 광장, 피터앤김, 세종, 화우, 율촌 등 여러 단체가 후원하였다.

우승팀인 서울대 법전원팀은 2023년 3월 19일~26일 홍콩에서 개최될 제20회 Willem C. Vis East Moot에 출전한다.

2022학년도 일반대학원(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2023년 2월 24일 ‘2022학년도 일반대학원(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학사보고, 인사말씀, 축사, 답사, 학위수여, 상장수여, 교가제창, 폐식의 순으로 이어졌다.

김종보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곧 사회로 나갈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바람직한 법조인의 자세를 갖추 것을 당부했다. 축사를 맡은 강용현 변호사 역시 졸업생들이 동창회의 일원이 될 것을 축하하며, 특히 법조인으로 사회 기여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법학박사 14명, 법학석사 22명, 법학전문박사 2명, 법학전문석사 151명을 포함하여 총 189명에 대한 학위 수여가 이루어졌다.



2023학년도 일반대학원(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개최

2023년 2월 27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2023학년도 일반대학원(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최준규 학생부원장의 개식 선언, 국민의례, 법전원 교수 소개, 김종보 원장의 축사, 김재왕 교수의 기념 강연, 교가 제창으로 이루어졌다. ‘Spero Spera(합창단)’과 ‘공연음악죄(교내 기악부)’가 축하공연으로 신입생을 맞이하기도 했다.

김종보 원장은 입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지, 덕, 체 모두를 고루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이기도 한 김재왕 교수의 조언은 많은 감동을 주었다. 이날 입학식은 많은 신입생과 그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입학식이 끝난 후에는 지도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법대 세미나실에서 조별모임의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익진로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의 역할’ 국제 심포지움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는 2022년 11월 30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공익진로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의 역할’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예비법조인의 공익진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로스쿨 및 법조계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세션은 미국 로스쿨의 공익진로 담당자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Alexa Shabecoff 하버드 로스쿨 전(前) 부학장은 하버드 로스쿨 공익진로개발실(OPIA)에서 25년간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버드 로스쿨의 공익진로 개발 프로그램 진행의 역사와 공익진로 1:1 상담, 펠로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 확보와 학내외 네트워크,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로스쿨의 펠로우십 제도를 활용한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아동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정하룡 미국변호사는 하버드 로스쿨 재학 중에 하버드의 프로보노 프로그램 담당실에서 연계하여 참여한 다양한 공익 프로젝트를 소개하였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 NGO에서 일한 경험, 국제인권클리닉, 아동법률클리닉을 통해 현장 실무를 터득한 경험을 나누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공익진로 활성화를 위한 법조계 전반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익활동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소수자 인권 보호, 사법접근권 확대 문제까지 다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공익소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송비용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성

도 언급하였다. 정병욱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익 지원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집행부 변화에 따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변호사협회가 법조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공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평가하였다.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수연 변호사는 공익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단체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고,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생에게 졸업 후 공익변호사 활동을 전제로 로스쿨 학비 감면·면제 등을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참석자 모두가 공익진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며, 관계 기관들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찾아 나가기로 하고 자리를 마무리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2022년도 제4회 동계공익법무실습’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 교수)는 로스쿨생들에게 다양한 공익현장과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임감과 공익적 가치를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2년도 제4회 동계공익법무실습을 개최하였다.

첫 번째 행사로 2022년 12월 19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전체 프로그램(특강, 패널토의)과 분반 강의로 구성된 사전교육(Boot Camp)을 개최하였다. 오전 프로그램은 공익법무실습 오리엔테이션, 특강(변호사의 사명과 공익활동/ 박준용 변호사), 패널토의(현장의 목소리/ 송지은, 김윤진, 이종훈, 김소리 변호사)로 구성되었다.

오후 프로그램은 배정된 동계법무실습에 따라 관련 강의를 이수하도록 진행되었고, 총 4개의 분반으로 운영되었다.

- ▲ 1분반-소수자의 인권과 변호사의 역할 (이한재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 2분반-공익기관은 로스쿨 실습생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 여성아동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 (차혜령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케)
- ▲ 3분반-경제개혁연대 주요 활동 소개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 ▲ 4분반-환경운동과 환경변호사 (최재홍 변호사, 법무법인 자연)

전체 150명의 참여 학생은 사전교육 후 각자 장애, 여성, 아동청소년,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30개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2023년 2월 23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진행되는 보고대

회를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 활동과 내용을 보고하고, 팀원과 기관 담당자의 소감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SNU Law 연구자포럼’ 개최 및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제3기 출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전상현 교수)는 2023년 1월 14일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2023년 ‘SNU Law 연구자포럼’ 제3기 강의를 세미나 2를 개최했다. “논문작성법”을 주제로 한 본 강연에서 김형석 교수는 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집필 및 투고 단계까지의 논문작성 과정에서 작성자가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소개했다.

2023년 1월 27일에는 우천법학관 김장리홀에서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제3기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전문석사과정생의 학위논문 작성을 지원하는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제3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본 출범식에서 참여자들은 각자의 관심 분야와 논문 주제를 발표했고, 전상현 교수와 함께 센터 소속 최석환 교수(부센터장), 이성범 교수(전문위원), 이종혁 교수(전문위원)가 본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학생지원센터,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국제학생 간담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학생지원센터(센터장 최준규 교수)는 2022년 10월 4일 17동 1층 휴게실에서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2학기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다.

2022학년도 2학기에 신규 입학한 국제학생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재학 중인 국제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대학원 생활의 적응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개최된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은 정종구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법전원 및 학사 과정 소개, 국제학생 재학생의 환영사 및 생활 안내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국제학생지원센터는 국제학생 신입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학기 초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제학생지원센터는 2022년 11월 29일 15-1동 2층 김장리홀에서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2학기 국제학생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는 국제학생들의 대학원 생활 전반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개최된 국제학생 간담회에는 최준규 학생부원장, 이근관 교수, 강광문 교수, 오영걸 교수가 참석하여 대학원 생활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국제학생지원센터는 간담회에 참석한 국제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국제학생들의 대학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소·센터 소식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재생산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의 모색’ 개최

2023년 2월 21일, ‘재생산권리(Reproductive Rights) 실현을 위한 제도의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학술대회가 17동 6층 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김종보 원장(서울대 법전원)의 개회사와 이우영 센터장(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연구책임자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제1부는 정공식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사회로 진행되어 전종의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헌법적 관점에서 본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이라는 주제로, 김정혜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 입법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장다혜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재생산권 관련 상담 절차 및 상담자 교육 등 체계’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최현정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홍진영 교수(서울대 법전원), 이은진 기획운영위원(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그리고 이보라 보좌관(권인숙 국회의원실)이 참여하였다.

제2부는 이계정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사회로 진행

되어 신필식 사무국장(입양의 공공성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이 ‘모명되지 않은 영역, 남성의 재생산권’이라는 주제로, 나영정 팀장(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이 ‘성소수자, 장애인의 재생산권’이라는 주제로,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한국의 재생산권리 실현의 체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최석환 교수(서울대 법전원), 유진아 사무국장(장애여성 공감), 그리고 황정미 연구원(서울대 여성연구소)이 발언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을 통해 법적 및 사회적 접근을 취하고, 재생산권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21회 공익산업법센터 국제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22년 9월 30일 하와이 하얏트 리젠시 와이키키 호놀룰루 호텔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최적화 방안 모색: 자율규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2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부 유럽에서의 논의 현황, 제2부 미국과 한국에서의 논의 현황, 제3부 종합토론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영국·프랑스·독일·미국·한국의 전문가들이 각국에서의 디지털 전환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최적화 방안에 관한 논의 현황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혜를 나누는 토론의 장을 진행하였다.

제86회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22년 11월 4일 ‘대전환기의 방송규제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제86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회정 교수(고려대 법전원)의 사회로 김용희 교수(동국대 영산대학원)이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규제 패러다임과 그 전망’이라는 [제1주제]로, 이종관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규제 패러다임과 그 전망’이라는 [제2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회정 교수(고려대 법전원)가 사회를 맡았고 이준웅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김정현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 최우정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조성동 연구위원(한국방송협회), 신호철 센터장(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상경 센터장(한국IPTV협회), 이희주 실장(콘텐츠 웹이브), 김여라 팀장(국회입법조사처)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2022년 11월 30일에는 등재학술지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2호를 발행하였다.

공익인권법 전문과정 제2기 수료식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12월 7일 비학위과정인 공익인권법 전문과정 제2기

(주임: 한인섭 교수)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공익·인권·정의의 실현을 위한 변화 촉매로서의 법의 비전 탐구”를 주제로 공익소송, 헌법소송, 공익입법을 추구하는 법적 활동들을 소개하고, 시민사회와 약자와 소수자의 시각에서 법의 변화를 추구하는 여러 노력을 탐구하였다. 이번 과정은 2022년 9월 14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13회 강연이 진행되었고 22명이 수료하였다.



공익인권법센터 재생산권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2022년도 1학과와 2학기에 걸쳐서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 실현을 위한 제도의 모색”이라는 큰 연구 주제 아래 총 6회의 세미나를 연속적으로 개최하였다. 202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총 세 번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2022년 9월 22일에는 “한국의 미혼모 정책, 베이비 박스, 해외입양의 인권문제”라는 주제로 제4회 재생산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사회로 오영나 대표(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한국의 미혼모 정책과 역사”라는 주제로, 이선형 연구위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베이비박스 아동 실태 및 돌봄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여현정 박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가 “한국의 해외입양 제도에 관한 검토: 해외입양인의 권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2년 10월 19일에는 “미혼모의 재생산권과 입양”이라는 주제로 제5회 재생산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사회로, 소라미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발표와 김미진 대표(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2022년 11월 9일에는 “재생산 의료 테크놀로지와 법정책”이라는 주제로 제6회 재생산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사회로, 김은애 교수(이화여대 연구윤리센터)의 발표와 하정옥 박사(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법이론연구센터 콜로키움 개최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는 법의 근본문제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의 콜로키움을 정기 개최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는 네 번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2022년 9월 14일에는 제40회 콜로키움을 개최

하여, 목광수 교수(서울시립대 철학과)가 “롤즈 「정의론」의 입체적 독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목광수 교수는 정의론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읽는 방식을 제시하고, 그런 입체적 독해가 정의론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하고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2022년 10월 19일에는 제41회 콜로키움을 열어, 양창수 명예교수(서울대 법전원, 전 대법관)가 “양형 기타 법관의 재량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다뤘다. 양창수 교수는 법관의 양형을 예로 들어 법이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단자의 ‘재량’에 관하여 논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 일반에 관한 이론적·철학적 사고가 어떠한 지침을 주고 있는지를 물었다. 2022년 11월 23일 제42회 콜로키움에서는 구교선 초빙교수(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가 “법과 정의에 대한 소피스트들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구교선 교수는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칼리클레스와 트라시마코스가 펼쳐나간 법에 대한 사유를 소개하고, 법이란 한갓 관습에 불과한 부정의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입장이 최소한 두 대화편 속에서는 완벽하게 논박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22일에는 제43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최병조 명예교수(서울대 법전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가 “로마 고전법률가들의 ‘정의’ 논변”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최병조 교수는 로마법대전 중 학설취찬(Digesta)에 나타난 고전기 로마법률가들의 법률 논변 중 “aequum esse”라는 설시가 등장한 개소들을 두루 검토하고, 그러한 논변의 중요한 유형 내지 국면을 정리하였다.

제2회 울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 개최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는 2023년 1월 18일 오후 3시 법무법인 울촌 렉처홀에서 ‘제2회 울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울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상으로, 법이론연구센터가 제정하고 법무법인 울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다수의 우수한 논문이 출품됐고,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영준 학생의 논문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가 대상을 받았다. 우수상·장려상 수상작들은 서울대 법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이론연구센터는 올 상반기에 학술지 「기초법학연구」 제2호를 발간하여 이번 수상논문들을 수록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매년 기초법학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공모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UNCITRAL Asia Pacific Day' 개최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이재민 교수)는 2022년 10월 20일 'UNCITRAL Asia Pacific Day'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학생들에게 UNCITRAL 활동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Athita Konmindr 소장이 UNCITRAL을 소개하였고, 김한결 법률전문위원이 UNCITRAL 관련 법제 소개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설명하였으며, 이재민 교수가 UNCITRAL Working Group 활동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UNCITRAL 업무를 수행하는 인턴 Carmen이 직접 인턴십 경험을 공유하였고, UNCITRAL Asia Pacific Day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법 실무 연구 시리즈' 중국법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2022년 11월 22일 '아시아법 연구 실무 시리즈'의 세 번째 학술대회로 법무법인(유) 세종과 중국 법제 관련 온/오프라인 공동 학술대회 '전환기 중국법률의 이해와 대응'을 개최하였다. 정준혁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전체 사회 하에 김종보 원장(서울대 법전원)의 개회사와 백제흠 대표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및 이재민 소장(서울대 법전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제1부에서는 허욱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의 사회로 원종재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의 '한중 협력의 새로운 합자모델 방향', 황효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의 '중국인사노무 - 코로나 시기 근로자 급여 지급 및 근로관계 정리 이슈를 중심으로', 김영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의 '2022년 중국의 신 반독점법 동향', 강상엽 교수(북경대 국제법학원)의 '중국의 복수의결권 제도 고찰' 등의 내실 있는 발표가 전개되었다. 제2부에서는 정준혁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사회를 맡아 오영걸 교수(서울대 법전원), 강광문 교수(서울대 법전원), 신각수 고문(법무법인(유) 세종), 왕강 중국 법치일보 한국특파원의 생생하고 심도 있는 종합토론 세션이 이루어졌다.



릴레이 도서 추천

릴레이 도서 추천은 법대 구성원들이 고민하면서, 때로는 휴식하면서 읽을만한 책을 여러 교수들이 차례로 추천하는 특집입니다.

조동은 교수



생각의 거울

작고한 프랑스의 소설가 미셸 투르니에가 114의 개념들을 서로 짝 지우고 대비 시켜 서술한 산문집이다.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양과 질'처럼 추상적인 것부터 '소금과 설탕', '고양이와 개'처럼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까지 두루 아우르며 그 대립의 의미를 다채롭게 풀어낸다. 철학을 전공한 소설가답게 발랄한 문장으로 때로는 숙연한, 때로는 무릎을 칠 만큼 기발한 통찰을 전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강박 없이,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우물에서 물을 길는 기분으로 아무 곳이나 펼쳐 보면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미셸 투르니에 | 북라인 | 2003



우리 헌법의 탄생

1948년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간접하면서도 숨씨 있게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유진오 연구가로서 제헌사에 대한 전문적 연구성과의 바탕 위에서 대중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작품을 내놓았다. 많은 내용을 압축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읽는 데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 짧은 책이므로 한국에서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꼭 한번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이영록 | 서해문집 | 2006



역사 속에서 걸어온 사람들

요절한 일본작가 나카지마 아쓰시의 대표적 중단편소설을 묶은 책이다. 저자는 중국 고전의 배경을 빌어 인간 조건을 극화(劇化)하는 데 장기를 보인다.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을 한탄하다가 호랑이로 변하고 만 이징(李徵)이 우연히 마주친 옛 친구에게 회한을 토로하는 「산월기」나, 공자의 제자 자로의 삶과 죽음을 다룬 「제자」 등은 길지 않은 분량이지만 깊은 울림을 준다. 저자의 작품집은 국내에서 여러 판본이 발간되어 있는데 실려 있는 글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다. 특히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산월기』에는 법률가적 분석의 예리함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나카지마 아츠키 | 다섯수레 | 2021



커버링

'커버링(covering)'은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이 사용한 개념으로서 사회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정체성의 보유자들이 그 정체성의 표현을 자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 책은 뉴욕대 헌법교수인 켄지 요시노가 이 커버링 개념을 다룬 확장하여 현대 미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차별이 작동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 효과를 연구한 결과물이다. 인종적, 성적 소수자로 살아온 저자 본인의 경험, 시대에 따른 차별의 양상과 그에 대한 대응의 역사, 법적 다툼의 현상과 구체적인 판례들이 총괄으로 엮인 장르교차적 작품으로서 문학적 재능이 법률가적 분석의 예리함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켄지 요시노 | 민음사 | 2017

SNU Law 人 캠페인 안내

SNU Law 人 캠페인은 매월 1만 원(1구좌)으로 서울법대를 후원하는 정기후원 캠페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서울법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SNU Law 人 기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사회공헌기금 - 공적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및 사회적 리더의 자격을 갖춘 서울법대 人 양성
교육장학기금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울법대 人 양성
학술연구 - 미래지향적인 법학 연구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서 서울법대 人 양성
일반기금 - 서울법대 교육 및 인프라 구축

• SNU Law 人에게 드리는 혜택

1. 세 제 혜택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2. 네 이 명 예 우
서울법대 홈페이지, 정의의 종 등에 기부자 명단 게재
3.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1만 원(1구좌) 이상의 정기후원을 약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 SNU Law 人 캠페인 참여방법

1. 온라인 기부페이지(신용카드, 계좌이체, CMS 신청가능)
 - <http://secure.donus.org/snulaw>
 -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연결 됩니다.



2. 전화·이메일
 - 전화. 02.880.2448
 - 이메일. lawgiving@snu.ac.kr
 - 카카오톡. [snulawfund](https://open.kakao.com/o/snulawfund)

Next Decade 기금 (발전기금) 안내

서울법대의 미래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정 문의	세제 혜택
• 전화·이메일 전화·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 방문 방문해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 • 법인기부자 당해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전화. 02.880.2448	
팩스 . 02.889.7196	
이메일. lawgiving@snu.ac.kr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2동 615호	

법 학 발 전 재 단 및 발 전기 금 출 연 현 황

2022. 9. 1. — 2023. 2. 28.

노주환	30,000	2022.09.02	이다혜	1,000,000	2022.09.21	박진호	10,000	2022.10.08
김효준	10,000	2022.09.05	정병기	10,000	2022.09.26	김지수	10,000	2022.10.08
박정현	10,000	2022.09.05	방윤섭	100,000	2022.09.26	김다연	30,000	2022.10.08
지승민	30,000	2022.09.05	김하영	50,000	2022.09.26	박은정	10,000	2022.10.08
구현정	10,000	2022.09.05	홍석재	50,000	2022.09.26	박상록	10,000	2022.10.08
홍성혜	10,000	2022.09.05	육지희	10,000	2022.09.26	이윤진	10,000	2022.10.08
신동일	70,000	2022.09.05	최지석	10,000	2022.09.26	이의영	30,000	2022.10.11
강희철	100,000	2022.09.05	전일호	10,000	2022.09.26	노주환	30,000	2022.10.19
(사)한국도선사협회	15,000,000	2022.09.07	유흥수	100,000	2022.09.26	이경준	100,000	2022.10.20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15,000,000	2022.09.07	노주환	30,000	2022.09.28	정병기	10,000	2022.10.25
정철호	10,000	2022.09.08	남정환	30,000	2022.09.29	방윤섭	100,000	2022.10.25
김정민	10,000	2022.09.08	노주환	30,000	2022.10.01	김하영	50,000	2022.10.25
강윤구	10,000	2022.09.08	김효준	10,000	2022.10.05	유흥수	100,000	2022.10.25
이종준	10,000	2022.09.08	박정현	10,000	2022.10.05	홍석재	50,000	2022.10.25
윤아현	10,000	2022.09.08	지승민	30,000	2022.10.05	육지희	10,000	2022.10.25
석소현	10,000	2022.09.08	구현정	10,000	2022.10.05	최지석	10,000	2022.10.25
이창규	10,000	2022.09.08	홍성혜	10,000	2022.10.05	전일호	10,000	2022.10.25
이종화	50,000	2022.09.08	신동일	70,000	2022.10.05	정철호	10,000	2022.11.08
유석호	50,000	2022.09.08	강희철	100,000	2022.10.05	김정민	10,000	2022.11.08
이현선	50,000	2022.09.08	정철호	10,000	2022.10.08	강윤구	10,000	2022.11.08
오테옥	100,000	2022.09.08	김정민	10,000	2022.10.08	이종준	10,000	2022.11.08
신혜주	50,000	2022.09.08	강윤구	10,000	2022.10.08	윤아현	10,000	2022.11.08
박진호	10,000	2022.09.08	이종준	10,000	2022.10.08	석소현	10,000	2022.11.08
김지수	10,000	2022.09.08	윤아현	10,000	2022.10.08	이창규	10,000	2022.11.08
김다연	30,000	2022.09.08	석소현	10,000	2022.10.08	이종화	50,000	2022.11.08
박은정	10,000	2022.09.08	이창규	10,000	2022.10.08	유석호	50,000	2022.11.08
박상록	10,000	2022.09.08	이종화	50,000	2022.10.08	이현선	50,000	2022.11.08
이윤진	10,000	2022.09.08	유석호	50,000	2022.10.08	오테옥	100,000	2022.11.08
노주환	30,000	2022.09.10	이현선	50,000	2022.10.08	신혜주	50,000	2022.11.08
이의영	30,000	2022.09.13	오테옥	100,000	2022.10.08	박진호	10,000	2022.11.08
이경준	100,000	2022.09.20	신혜주	50,000	2022.10.08	김지수	10,000	2022.11.08

김다연	30,000	2022.11.08	신현집	35,000	2022.12.07	김광현	35,000	2022.12.21
박은정	10,000	2022.11.08	민병의	35,000	2022.12.07	원대성	35,000	2022.12.21
박상록	10,000	2022.11.08	김효정	300,000	2022.12.07	이동호	70,000	2022.12.21
이윤진	10,000	2022.11.08	구재훈	35,000	2022.12.07	이소민	35,000	2022.12.21
김효준	10,000	2022.11.08	김강희	35,000	2022.12.07	정세연	35,000	2022.12.21
강희철	100,000	2022.11.08	이은달	35,000	2022.12.07	박재윤	35,000	2022.12.21
박정현	10,000	2022.11.08	지승민	35,000	2022.12.07	이지혜	35,000	2022.12.21
신동일	70,000	2022.11.08	김윤민	35,000	2022.12.07	김말금	35,000	2022.12.21
구현정	10,000	2022.11.08	장연수	35,000	2022.12.07	박지혜	35,000	2022.12.21
홍성혜	10,000	2022.11.08	윤혜정	35,000	2022.12.07	이희경	35,000	2022.12.21
이의영	30,000	2022.11.10	최효재	35,000	2022.12.07	김유정	35,000	2022.12.21
이경준	100,000	2022.11.21	송화	35,000	2022.12.07	노호경	35,000	2022.12.21
정병기	10,000	2022.11.25	최완	35,000	2022.12.07	김은집	35,000	2022.12.21
방윤섭	100,000	2022.11.25	허은지	35,000	2022.12.07	조재형	70,000	2022.12.21
김하영	50,000	2022.11.25	양동윤	35,000	2022.12.07	유현재	70,000	2022.12.21
홍석재	50,000	2022.11.25	김병국	35,000	2022.12.07	김재완	140,000	2022.12.21
육지희	10,000	2022.11.25	박유준	35,000	2022.12.07	김동연	105,000	2022.12.21
최지석	10,000	2022.11.25	최정찬	35,000	2022.12.07	김예진	105,000	2022.12.21
전일호	10,000	2022.11.25	임규선	70,000	2022.12.07	김은진	35,000	2022.12.21
유흥수	100,000	2022.11.25	최세환	35,000	2022.12.07	구본승	35,000	2022.12.21
학봉장학회	60,000,000	2022.11.28	이규철	35,000	2022.12.07	윤희상	35,000	2022.12.21
정철호	10,000	2022.12.08	신은우	35,000	2022.12.07	오은채	35,000	2022.12.21
김정민	10,000	2022.12.08	김다연	35,000	2022.12.07	장한별	70,000	2022.12.21
강윤구	10,000	2022.12.08	신승훈	35,000	2022.12.07	안영재	35,000	2022.12.21
이종준	10,000	2022.12.08	전두영	35,000	2022.12.07	이재진	70,000	2022.12.21
윤아현	10,000	2022.12.08	홍서현	35,000	2022.12.07	정우재	35,000	2022.12.21
석소현	10,000	2022.12.08	류일화	35,000	2022.12.07	김민주	35,000	2022.12.21
이창규	10,000	2022.12.08	임민희	35,000	2022.12.07	김지연	35,000	2022.12.21
이종화	50,000	2022.12.08	신승한	35,000	2022.12.07	성하경	35,000	2022.12.21
유석호	50,000	2022.12.08	권소담	35,000	2022.12.07	김소연	70,000	2022.12.21
이현선	50,000	2022.12.08	김찬호	35,000	2022.12.07	황규민	35,000	2022.12.21
오테옥	100,000	2022.12.08	박수빈	35,000	2022.12.07	유정민	35,000	2022.12.21
신혜주	50,000	2022.12.08	황지원	70,000	2022.12.07	김경진	35,000	2022.12.21
박진호	10,000	2022.12.08	남승민	70,000	2022.12.07	박건신	35,000	2022.12.21
김지수	10,000	2022.12.08	정선아	70,000	2022.12.07	송지현	35,000	2022.12.21
김다연	30,000	2022.12.08	진형원	35,000	2022.12.07	이호현	35,000	2022.12.21
박은정	10,000	2022.12.08	박제연	35,000	2022.12.07	박희운	35,000	2022.12.21
박상록	10,000	2022.12.08	김지수	35,000	2022.12.08	여인영	35,000	2022.12.21
이윤진	10,000	2022.12.08	강민정	35,000	2022.12.08	구성훈	35,000	2022.12.21
김효준	10,000	2022.12.08	문한규	35,000	2022.12.08	남기완	35,000	2022.12.21
강희철	100,000	2022.12.08	류재현	35,000	2022.12.08	홍규민	35,000	2022.12.21
박정현	10,000	2022.12.08	손다솔	35,000	2022.12.09	최찬영	35,000	2022.12.21
신동일	70,000	2022.12.08	전진원	35,000	2022.12.10	이현우	150,000	2022.12.21
구현정	10,000	2022.12.08	김시후	35,000	2022.12.10	박보희	35,000	2022.12.21
홍성혜	10,000	2022.12.08	전민서	35,000	2022.12.11	장재윤	105,000	2022.12.21
권영준	10,000,000	2022.12.09	홍영완	35,000	2022.12.11	이혜영	35,000	2022.12.21
이의영	30,000	2022.12.12	형은성	35,000	2022.12.11	강제인	70,000	2022.12.21
이경준	100,000	2022.12.20	황기현	35,000	2022.12.14	김다빈	35,000	2022.12.21
홍진기법률연구재단	10,800,000	2022.12.23	강민지	35,000	2022.12.14	김소연	35,000	2022.12.21
정병기	10,000	2022.12.26	한민호	35,000	2022.12.14	오진우	35,000	2022.12.21
방윤섭	100,000	2022.12.26	박상현	105,000	2022.12.14	정서용	35,000	2022.12.21
김하영	50,000	2022.12.26	강태승	35,000	2022.12.14	이주형	35,000	2022.12.21
홍석재	50,000	2022.12.26	김현정	35,000	2022.12.15	김상우	35,000	2022.12.21
육지희	10,000	2022.12.26	정수현	35,000	2022.12.16	김광홍	35,000	2022.12.21
최지석	10,000	2022.12.26	강호길	35,000	2022.12.16	정지혜	35,000	2022.12.21
전일호	10,000	2022.12.26	최유경	35,000	2022.12.16	이재빈	35,000	2022.12.21
유흥수	100,000	2022.12.26	김동연	35,000	2022.12.16	김민혜	35,000	2022.12.21
한예슬	70,000	2022.12.07	한우현	70,000	2022.12.16	전혜연	35,000	2022.12.21
강세원	105,000	2022.12.07	조원휘	35,000	2022.12.16	이은총	35,000	2022.12.21
정승기	35,000	2022.12.07	이혜경	35,000	2022.12.16	서정원	70,000	2022.12.21
정혜라	35,000	2022.12.07	전혜원	70,000	2022.12.16	양연실	35,000	2022.12.21
양태용	35,000	2022.12.07	이유리	35,000	2022.12.16	박동준	105,000	2022.12.21
강하니	35,000	2022.12.07	임지석	35,000	2022.12.16	김종현	35,000	2022.12.21
장윤정	35,000	2022.12.07	김규성	35,000	2022.12.16	김석원	70,000	2022.12.21
강인정	35,000	2022.12.07	공현지	35,000	2022.12.16	백선아	35,000	2022.12.21
서희송	70,000	2022.12.07	이종욱	35,000	2022.12.17	임종찬	35,000	2022.12.21
이태준	70,000	2022.12.07	강라임	35,000	2022.12.18	이현성	35,000	2022.12.21
이용현	35,000	2022.12.07	이용현	35,000	2022.12.20	최명지	35,000	2022.12.21
박지웅	35,000	2022.12.21	신진경	35,000	2022.12.21	신진경	35,000	2022.12.21
황동하	35,000	2022.12.21	고윤아	35,000	2022.12.22	고윤아	35,000	2022.12.22
한경원	35,000	2022.12.21	강보라	35,000	2022.12.22	강보라	35,000	2022.12.22

손호영	1,000,000	2023.01.06	학봉장학회	10,000,000	2023.01.12	박상록	10,000	2023.02.05
강윤구	10,000	2023.01.08	이경준	100,000	2023.01.20	김효준	10,000	2023.02.05
이종준	10,000	2023.01.08	정병기	10,000	2023.01.25	박정현	10,000	2023.02.05
윤아현	10,000	2023.01.08	방윤섭	100,000	2023.01.25	지승민	30,000	2023.02.05
석소현	10,000	2023.01.08	김하영	50,000	2023.01.25	구현정	10,000	2023.02.05
이창규	10,000	2023.01.08	홍석재	50,000	2023.01.25	홍성혜	10,000	2023.02.05
이종화	50,000	2023.01.08	육지희	10,000	2023.01.25	신동일	70,000	2023.02.05
유석호	50,000	2023.01.08	최지석	10,000	2023.01.25	강희철	100,000	2023.02.05
이현선	50,000	2023.01.08	전일호	10,000	2023.01.25	이의영	30,000	2023.02.10
오태욱	100,000	2023.01.08	유홍수	100,000	2023.01.25	태평양	1,500,000	2023.02.15
신혜주	50,000	2023.01.08	강윤구	10,000	2023.02.05	강삼석	100,000,000	2023.02.16
박진호	10,000	2023.01.08	이종준	10,000	2023.02.05	울촌	1,800,000	2023.02.16
김지수	10,000	2023.01.08	윤아현	10,000	2023.02.05	이경준	100,000	2023.02.20
김다연	30,000	2023.01.08	석소현	10,000	2023.02.05	ALP 33	50,000,000	2023.02.27
박은정	10,000	2023.01.08	이창규	10,000	2023.02.05	정병기	10,000	2023.02.27
박상록	10,000	2023.01.08	이종화	50,000	2023.02.05	방윤섭	100,000	2023.02.27
김효준	10,000	2023.01.08	유석호	50,000	2023.02.05	김하영	50,000	2023.02.27
박정현	10,000	2023.01.08	이현선	50,000	2023.02.05	홍석재	50,000	2023.02.27
지승민	30,000	2023.01.08	오태욱	100,000	2023.02.05	육지희	10,000	2023.02.27
구현정	10,000	2023.01.08	신혜주	50,000	2023.02.05	최지석	10,000	2023.02.27
홍성혜	10,000	2023.01.08	박진호	10,000	2023.02.05	전일호	10,000	2023.02.27
신동일	70,000	2023.01.08	김지수	10,000	2023.02.05	유홍수	100,000	2023.02.27
강희철	100,000	2023.01.08	김다연	30,000	2023.02.05			
이의영	30,000	2023.01.10	박은정	10,000	2023.02.05			

* 기부정보는 기부자의 익명약정 요청 및 신청서가 미접수된 경우 해당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 우 안 내

기부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과 서울법대의 특별 예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1억 원	5천만 원	1천만 원	1백만 원
기념품 및 간행물	총장 명의 감사패, 원장 명의 감사패	●	●	●	●	●	●	감사장
	기념품(본부, 법대), 간행물(본부, 법대), 달력, 생일카드	●	●	●	●	●	●	●
관악 명예 동문 특별초청	입학식, 개교기념식	●	●	-	-	-	-	-
	총장실 초청 약정식 및 감사패	●	●	●	●	-	-	-
	캠퍼스투어, 장학금 수여식	●	●	●	●	-	-	-
	기부자 초청 음악회, 전시회	●	●	●	●	●	●	-
	법대 행사 초청	●	●	●	-	-	-	-
	홍상	●	-	-	-	-	-	-
	부조	●	●	-	-	-	-	-
	기부자 리포트(본부, 법대)	●	●	●	●	●	-	-
	법대 명예의 전당(17동 1층) 명예 보존, 행정관 명예의 전당, 연구공원 명예의 전당(1억원 이상)	●	●	●	●	●	●	-
	교내 주요 행사 초청	●	●	●	●	●	-	-
	총장 공관 만찬 초청	●	-	-	-	-	-	-
	관악캠퍼스 무료주차	●	●	●	●	-	-	-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관람	●	●	●	●	●	●	-
	호암교수회관 및 서울대 기념품 할인	●	●	●	●	●	●	-
학교시설 이용편의	중앙도서관 본관 이용	●	●	●	●	●	●	●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기한
	법학도서관 이용	●	●	●	●	●	●	●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추천권	●	●	●	●	●	-	-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건강검진 주선 및 진료예약	평생	평생	기한	기한	-	-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의전서비스	평생	10년	기한	기한	-	-	-
	근조기	●	●	●	●	●	●	-

SNU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7530
Fax. 02-889-7196

정의의 종 37호
<http://law.snu.ac.kr>